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 비교

김 자 경*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강 혜 진**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의 경도장애아동과 16명과 동 학년 일반아동 24명을 대상으로 학습기술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학습기술 총점의 비교에서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기술 하위영역 별 비교에서 경도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자기관리, 수업참여, 과제해결, 시험치기, 정보처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도장애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본다.

주제어 : 경도장애아동, 학습기술, 학업성취

I. 서론

1. 연구의 의의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1998). 자기 주도적 학습은 개인이 스스로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구사하며, 스스로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박한숙, 2003에서 재인용). 최근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의 하나로 학습기술(study skills)이 주목받고 있다(김자경, 정남용, 2001; 변영계, 김석우, 2002). 학습기술이란 학습자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여러

* 제1저자

** 교신저자 (polehj@hanmail.net)

가지 기법들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으로(변영계 등, 1999),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김자경, 정남용, 2001). 변영계 등(1999)은 학습기술을 자기관리 기술, 수업참여 기술, 과제해결 기술, 시험관리 기술, 정보처리 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Weinstein 등(1988)은 학습 태도와 동기, 시간관리, 시험치기 기술, 정보처리, 불안에 대한 대처, 학습 보조자료 활용하기 기술을 제시하였고, Fountain(1992)은 시간관리, 교재 읽기, 노트하기, 시험준비 및 시험치기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마다 학습 기술 분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학습기술은 학습의 수행에 있어서 상호 보충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을 도와주며 학습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다(김자경, 정남용, 2001).

학습기술이 학업성취와 상관이 있음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하여왔다(강태용, 2002, 2003; 박한숙, 1998; 변영계, 안종민, 2001; 이경화, 손원경, 2005; 조현철 등, 2007). 즉,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은 학습기술 활용능력이 높은 반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은 학습기술의 활용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에 학습기술의 향상은 학업성취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통합교육의 흐름과 함께 많은 장애아동들은 일반학교의 학습도움실, 시간제 특수학급, 중일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학교에 통합되는 중증장애아동의 수가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경도 수준의 장애아동들은 일반학급으로 완전통합 되는 추세이다. 경도장애아동은 중도나 중증장애에 비해 감각·신체상의 뚜렷한 장애가 없으며 외양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지만(김자경, 2001), 비효율적인 학습자(inefficient school learner)로 학업성취에 주로 문제를 가진다(MacMillan et al., 1986). 일반아동보다 학업능력이 뒤쳐지는 경도장애아동은 일반학급에서 수업활동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수업시간동안 방임되는 경우가 많다(김미숙, 박은미, 2007; 최진오, 2007).

일반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습기술 사용의 낮은 수준과 성격 및 정서적 장애, 기초학력 및 학습경험의 부족, 학습습관 및 태도의 부적절, 학습 환경 및 가정환경의 장애를 저성취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안도희, 김옥분, 2007; Al-Hilawani & Sartawi, 1997; Gangwar, 1982; Raghavakumari 1986; Robbins, et al., 2004). 경도장애아동의 낮은 학업성취 역시 아동이 지닌 특정 장애와 더불어 위에 제시한 다양한 원인들의 영향 또한 클 것이라 생각된다.

저성취의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환경적인 문제, 성격이나 정서장애, 지능 등은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학습기술이나 학습습관과 같은 문제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습득될 수 있다(변영계, 강태용, 2001; Rutkowski & Domono, 1975). 따라서 학업성취에 있어서 내재적인 제약을 받는 경도장애아동에게 있어서 학습기술의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경도장애아동이 습득하는 학습기술은 모든 학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성 및 행동부분의 학습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김자경, 정남용, 2001).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도장애아동이 학습기술에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Boyle, 2007, Calson & Alley, 1981; Hoover, 1989), 구체적으로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의 비교를 통해서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학습기술 사용 수준을 알아봄으로써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전체 학습기술과 하위영역별 학습기술(자기관리기술, 수업참여기술, 과제해결기술, 시험치기기술, 정보처리기술)의 사용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정도의 비교를 통하여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 P지역의 일반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의 경도장애아동 16명과 동 학년 일반아동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도장애아동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미 판별 받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둘째, K-WISC-III 지능검사 결과가 IQ 55 이상인 경우

셋째, 감각·신체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

일반아동은 경도장애아동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고려하여서,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학업은 평균의 수행을 나타내며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학습장애아동 5명, 언어장애아동 2명, ADHD 아동 4명, 경도정신지체아동 5명으로 총 16명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성별		학년				합계
	남	여	3	4	5	6	
경도장애아동	11	5	4	6	3	3	16
일반아동	16	8	5	8	5	6	24

2. 연구도구

1) 학습기술진단검사

본 연구에서는 학습기술 측정을 위해 변영계와 김석우(2002)에 의해 개발된 초등학교용 학습기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하위영역은 자기관리, 수업참여, 과제해결, 시험치기, 정보처리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문항내용과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되고 전체 점수범위는 60~300점이다. 피검사자는 공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거의 ~ 않는다, 2점: 가끔 ~ 한다, 3점: 보통 ~ 하는 편이다, 4점: 자주 ~ 한다, 5점: 항상 ~ 한다)로 평정한다. 본 검사도구의 저자가 검사한 문항 내적 합치도는 전체 검사의 α 값이 .94이고, 하위영역별 α 값은 .79~.86로 신뢰롭다. 또한 하위영역 간에 $r=.29\sim.39$ 의 범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하위영역의 Cronbach $\alpha = .83\sim.90$ 이고, 총점의 Cronbach $\alpha = .97$ 로 매우 신뢰롭다. 본 검사도구는 교육, 치료, 연구 등의 목적으로 학습기술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를 발견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변영계, 김석우, 2002).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써 설문조사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P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와 일반학급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지를 e-mail이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특수학급 교사와 일반학급 담임교사에게 검사도구의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문지 작성 방법과 유의 사항을 전달한 후 교사들이 개별아동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을 지도하여 작성하게 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서 교사들은 개별아동에게 자신이 공부할 때 사용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 중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표시하도록 하고,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문제를 빠뜨리지 말고 한가지로만 응답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한 후 아동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한 후, 경도장애아동 16명과 일반아동 24명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2> 학습기술 검사의 하위영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내용	문항 구성	문항수	배점	Cronbach α
자기관리 기술	학습자료 준비와 공간의 조직 및 시간과 계획의 관리, 동기 관리를 포함한 신체/심리적 상태관리, 적절한 도움 요청	1,2,6,11,16, 21,26,31,36, 41,46,51,56	13	65	.86
수업참여 기술	수업에 대한 준비와 능동적 참여, 교 사와 급우에 대한 태도, 수업에 관련 된 동기와 주의집중, 노트필기 기술	3,8,13,18,23, 28,33,38,43, 48,53,58	12	60	.90
과제해결 기술	읽기·쓰기 과제해결 기술, 가정학습 과제 해결기술, 지시사항 파악기술, 가정학습과제의 파악 및 조직화, 가정 학습 도중 주의산만에 대한 대처	5,10,15,20, 25,30,35,40, 45,50,55,60	12	60	.85
시험치기 기술	시험준비, 심리적 대처, 시험계획 및 시간의 관리, 시험공부 요령파악	7,12,17,21, 27,32,37,42, 47,52,57	11	55	.83
정보처리 기술	정보의 조직, 기억기법, 적용/관련짓 기 및 자기점검	4,9,14,19,24, 29,34,39,44, 49,54,59	12	60	.89
전체		60	60	300	.97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학습기술 총점과 하위영역 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총점 비교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총점을 비교한 결과는 <표3>과 같다. 두 집단 간의 총점을 비교한 결과, 경도장애아동(148.50 ± 40.55)이 일반아동(208.83 ± 39.13)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70, p < .001$).

<표 3>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총점 비교

영역	대상	N	M	SD	t 값
총점	경도장애	16	148.50	40.55	-4.70***
	일반	24	208.83	39.13	

*** $p < .001$

2.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하위영역 별 점수 비교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을 하위영역 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4>과 같다.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모든 영역에서 학습기술 사용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관리($t = -4.67$), 과제해결($t = -5.04$), 시험치기($t = -5.46$), 정보처리($t = -3.82$)는 0.1% 수준에서, 수업참여($t = -3.17$)는 1% 수준에서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하위영역 별 비교

영역	대상	N	M	SD	t 값
자기관리	경도장애	16	31.62	7.88	-4.67***
	일반	24	44.79	9.23	
수업참여	경도장애	16	30.18	10.51	-3.17**
	일반	24	40.45	9.99	
과제해결	경도장애	16	31.06	7.97	-5.04***
	일반	24	43.75	7.67	
시험치기	경도장애	16	26.81	7.73	-5.46***
	일반	24	39.45	6.76	
정보처리	경도장애	16	28.81	9.84	-3.82***
	일반	24	40.37	9.05	

** p<.01, *** p<.001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사용 수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도장애아동 16명과 일반아동 24명을 대상으로 학습기술 사용 수준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 총점을 비교한 결과,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학습기술의 사용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아동이 학습기술의 활용도가 낮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강태용, 2002, 2003; 박한숙, 1998; 변영계, 안종민, 2001; 이경화, 손원경, 2005; 이순우, 이종승, 2003; 조현철 등, 2007).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도장애아동의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학업기술을 생각할 수 있

다. 한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원인이나 성격·정서적인 원인 혹은 기초학력 등은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학습기술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 습득될 수 있으며(변영계, 강태용, 2001; Rutkowski & Domono, 1975), 습득된 학습기술은 경도장애아동의 학업성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Gettinger & Seibert, 2002). 따라서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학습기술 훈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경도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기술을 하위영역 별로 비교한 결과, 자기관리, 수업참여, 과제해결, 시험치기, 정보처리 기술 등의 모든 영역에서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영역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리 학습기술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시간, 학습공간과 자료, 스트레스나 불안 등과 같은 내·외적 학습 환경을 관리하고, 학습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기술이다(변영계, 김석우, 2002). 일반아동은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관리 기술이 습득된다(박한숙, 1998; 변영계 등, 1999). 하지만, 장애아동들은 이러한 자기관리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데, 경도장애아동은 훈련을 통하여 자기관리 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선행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Karoly & Kanfer, 1982). 자기관리 기술은 학업성취의 향상뿐만 아니라(민은주, 2004), 경도장애아동의 자기결정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Wehmeyer et al., 1998),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게 도와준다(Mercer, 1997). 또한 자기관리 기술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만족, 흥미 그리고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Agran, 1997), 경도장애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된다.

둘째, 수업참여 기술에는 수업에 대한 준비부터 수업과 관련된 동기와 주의집중, 노트필기 기술과 같은 기술을 포함된다(변영계, 김석우, 2002). 본 연구의 대상인 경도장애아동에는 학습장애, ADHD, 정신지체를 포함한다. 이들 장애의 공통적인 특성 중의 하나가 주의집중문제이다. 아동의 장애로 인한 주의집중문제는 수업참여를 방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장애아동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도장애아동들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집중과 관련된 수업참여기술을 교수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경도장애아동은 수업에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며(Hughes & Suritsky, 1994), 특히 빠른 속도로 노트필기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Suritsky, 1992). 이러한 어려움은 수업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저하시켜 수업참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노트필기 기술은 시험 점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Peper & Mayer, 1986). 따라서 경도장애아동에게 노트필기와 같은 수업에 필요할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이들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과제해결 기술에는 읽기·쓰기과제 해결기술, 가정학습과제 해결기술, 지시사항 파악기술을 포함된다(변영계, 김석우, 2002). 본 연구에서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

다 과제해결 기술이 낮게 나타난 것은, 많은 경도장애아동이 읽기·쓰기의 어려움과 함께 읽기·쓰기의 전략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유영옥, 안성우, 2002; 박경산 등, 2003; 최정미 등, 2006). 여러 선행연구에서 읽기·쓰기 전략의 훈련을 통한 학업 수행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으므로(강낙근, 1991; 김희수, 2007; 이경화, 2003; 한경임, 김수진, 2003)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읽기·쓰기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과제해결 기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험치기 기술에는 시험준비, 시험공부 요령과약, 시험계획 및 시간관리, 심리적 대처 요령이 포함된다(변영계, 김석우, 2002). 본 연구에서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시험치기 기술이 낮게 나타난 것은 Carlson과 Alley(198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도장애아동들은 시험의 형식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 뿐 아니라(Hoover, 1989에서 재인용), 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대한 거부감, 긴장감,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Fristad et al., 1992; Nijssen & Schelvis, 1987). 따라서 경도장애아동에게 시험 보는 원리, 시험 준비, 시험시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학습시켜야 할 것이며,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를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처리 기술에는 정보조직, 기억기법 이용, 적용/관련짓기 및 자기점검이 포함된다(변영계, 김석우, 2002). 이는 학습자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제시된 정보를 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관련된 기술이다(박한숙, 1993). 본 연구에서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정보처리 기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Fletcher, 1985; Swanson, 1993, 1994).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보조직, 기억기법, 자기점검과 같은 정보처리 기술이 학습의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김경현, 2003, 2004; 김소영, 2004; 변영계, 김경현, 2001). 따라서 경도장애아동의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처리 기술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도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학습기술의 총점과 자기관리, 수업참여, 과제해결, 시험치기, 정보처리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에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다양한 학습기술 훈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도장애아동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년, 성별, 장애영역 등의 변인에 따라 분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여러 변인에 따른 특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경도장애아동의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서 경도장애아동의 학업성취 향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낙근 (1991). 읽기 전략 훈련이 읽기 능력, 학습 습관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어문학 교육**, 13, 93-121.
- 강태용 (2002). 학습기술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관,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강태용 (2003). 학습기술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관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1(1), 173-194.
- 교육부 (1998). 교육부 고시 제 1997-1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교육부.
- 김경현 (2003). 기억술 중심의 스키마 활용 학습법이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연구**, 9(2), 1-20.
- 김경현 (2004). 기억술을 활용한 스키마 학습법이 초등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12(1), 117-145.
- 김미숙, 박은미 (2007).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경도발달장애아동의 교육 및 실태 연구. **정신지체 연구**, 9(3), 111-131.
- 김소영 (2004). 자기점검 전략이 학습장애 아동의 철자 오류개선과 작문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현장 특수교육연구보고서**, 1-84.
- 김자경 (2001). 경도장애학생을 위한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6(2), 21-44.
- 김자경, 정남용 (2001). 실과교과를 통한 경도장애학생을 위한 학업기술 교수 전략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4(4), 65-82.
- 김희수 (2007). CSQ3Rs 독서전략이 고등학생의 학습태도, 자기효능감 및 읽기이해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1(2), 477-496.
- 민은주 (2004). 자기관리 지도가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기술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박경산, 박재국, 김윤혜 (2003). 독해학습전략 훈련이 읽기장애아의 독해력 향상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1), 241-261.
- 박한숙 (1993). 학습자의 성취동기와 학습전략 사용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한숙 (1998).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기술 사용에 관한 차이 분석. **열린교육학회지**, 6(2), 239-254.
- 박한숙 (2003).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업참여 기술. **열린교육연구**, 11(1), 81-100.
- 변영계, 강태용 (2001). 대학생들의 학습 기술 훈련 방안 탐색. **고등교육연구**, 12(2), 95-116.
- 변영계, 김경현 (2001). 기억술을 활용한 학습법이 아동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1, 45-63.
- 변영계, 김석우 (2002). **학습기술진단검사**. 학지사: 서울.
- 변영계, 김석우, 박한숙 (1999). 초등학교 고학년용 학습기술 검사도구 개발. **교육평가연구**, 12(2), 103-125.
- 변영계, 안중민 (2001). 중학생용 학습기술 검사의 개발 연구. **교육학연구**, 39(1), 125-146.
- 안도희, 김옥분 (2007). 학문적 미성취 중학생들의 학업관련 특성: 학업성적, 학업관련 태도,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 학습전략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3), 723-745.
- 유영옥, 안성우 (2002). 읽기 전략 지도방법의 차이가 중학교 읽기장애아의 독해력 및 국어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정서학습장애연구**, 18(3), 151-173.
- 이경화 (2003). 제7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및 토론: 읽기 부진아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초인지 전략의 상보적 교수활동 효과. **발달장애학회지**, 7(2), 161-179.
- 이경화, 손원경 (2005). 학업우수집단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의 학습기술 분석. **교육방법연구**, 17(1),

- 125-141.
- 이순우, 이종승 (2003).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과정평가연구*, 6(1), 1-24.
- 조현철, 현성용, 한영숙 (2007). 학습기술, 학습동기,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58-459.
- 최정미, 김성화, 강병주, 변찬석 (2006).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중재가 학습장애아의 읽기,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153-174.
- 최진오 (2007). 수학학습장애아와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학습교사의 인식조사연구. *초등교육연구*, 20(3), 37-57.
- 한경임, 김수진 (2003). 중북,지체부자유 아동의 읽기 중재 전략.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41, 121-140.
- Al-Hilawani, Y. A., & Sartawi, A. A. (1997). Study skills and habit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1(4), 538-544.
- Agran, M. (1997). *Student directed learning*. Pacific Groves, CA: Brooks/Cole.
- Boyle, J. R. (2007). The process of note taking: implications for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Clearing House*, 80, 227-230.
- Carlson, S. A., & Alley, G. R. (1981). *Performance and competence of learning disabled and high achieving high school students on essential cognitive skills*.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Institute for Research in Learning Disabilities.
- Fountain, R. L. (1992). Development of a study skills packet to improve grades in ninth and tenth grade students (ERIC Document Reproductive No. ED350592).
- Fletcher, J. M. (1985). Memory for verbal and nonverbal stimuli in learning disability subgroups: Analyses by selective remi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ren Psychology*, 40, 244-259.
- Fristad, M. A., Topolosky, S., Weller, E. B., & Weller, R. A. (1992). Depression and learning disabilities in childr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26, 53-58.
- Gangwar, H. S. (1982). Study habits as funct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cultural setting in first divisioners of high school students. *Indian Psychological Review*, 23, 33-37.
- Gettinger, M., & Seibert, J. K. (2002). Contributions of study skills to academic competence. *School Psychology Review*, 31(3), 350-365.
- Hoover, J. J. (1989). Study skills and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2, 452-455.
- Hughes, C. A., & Suritsky, S. K. (1994). Note-taking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7(1), 20-24.
- Karoly, P., & Kanfer, F. H. (1982). *Self management and behavior changer: For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Pergamon Press.
- MacMillan, D. L., Keogh, B. K., & Jones, R. L. (1986). Special education research on mildly handicapped learners.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3rd ed.)*(pp.686-724). New York: Macmillan.
- Mercer, C. D. (1997).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Nijssen, A., & Schelvis, P. R. (1987). Effect of an anti-anxiety drug in a learned helplessness experiment. *Neuro psychobiology*, 18, 195-198.
- Peper, R. J., Mayer, R. F. (1986). Generative effects of note-taking during science lect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1), 34-38.
- Raghavakumari, A. S. (1986) Diagnosing student difficulties and guiding students. *Indian Journal of Behavior*, 10, 17-22.
- Robbins, S. B., Huy, L., Davis, D., Carlstrom, A., Lauver, L., & Langley, R. (2004). Do psychosocial and study skill factors predict college outcom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0(2), 261-288.

- Rutkowski, K., & Domono, G. (1975). Interrelationship of study skills and personality variables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784-789.
- Suritsky, S. K. (1992). Notetaking approaches and specific areas of difficulty reported by university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Postsecondary and Disability*, 10(1), 3-10.
- Swanson, H. L. (1993). Executive processing in learning disabled readers. *Intelligences*, 17, 117-149.
- Swanson, H. L. (1994). Short-term memory and working memory: do they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 and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7, 34-50.
- Wehmeyer, M. L., Agran, M., & Hughes, C. (1998). Teaching self-determination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ic skills for successful transition(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19361).
- Weinstein, C. E., Zimmerman, S. A., & Palmer, D. R. (1988). Assessing learning strategies: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LASSI. In C. E. Weinstein, E. T. Goetz & P. A. Alexander (Eds.).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pp. 25-40). New York: Academic Press.

Comparison of Study Skills Level between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and without Disabilities

Kim, Ja-K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Kang, Hye-Ji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tudy skills level of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and without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6 children mild disabilities and 24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the total score of the study skills between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and without disabilities.

Seco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levels of the subarea of study skills(self-management, classroom participation, assignment solving, test-taking, information processing) between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and without disabilities.

Key words: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study skills, academic achieve